

# 01 녹색성장 이끌 '새로운 물의 시대' 열어야



2009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4대강 살리기, 지역특성에 맞는 식수원 개발, 빗물 재활용 등 강조



2009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3월 20일 코엑스에서 거행됐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환경부·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인 수자원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줬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물의 시대'를 선언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이만의 장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이제부터는 물의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 물을 통해 녹색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권역별로 고르게 물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노후된 수도관

개량에도 투자를 늘려 공급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일 것"이며 "빗물을 잘 활용하고 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물산업을 녹색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살리기는 홍수를 근본적으로 막고 산업화 과정의 오염원을 제거하여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강을 재탄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지하수협회 안근목 회장에게 국민훈장이 수여되고, 홍익대 김응호 교수에게 근정포장이 수여되는 등 물관리에 공헌한 민간인과 공무원을 비롯한 16명에게 정부포상이 전달됐다. 한편 환경부는 3월 한 달을 '세계 물의 날' 행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물절약 홍보 포스터 및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물의 소중함과 물절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 중이다. ☺

## 02 목타는 가뭄지역 '사랑의 물'로 적시다



서울시, 겨울가뭄 지역에 '아리수' 11만 병 추가 지원  
올 들어 모두 35만여 병 지원, 가뭄지역 식수난 해결에 한 몫

\*

사상 최악의 겨울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 주민을 돕기 위한 지원 행렬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일과 6일 양일간 심각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경남과 전남, 강원 지역 주민들에게 서울시 수도물인 '아리수' 페트병 11만 병을 추가로 지원했다. 시는 올해 들어 네 차례에 걸쳐 강원도 태백시, 경상남도 남해군, 전라남도 신안군 및 다도해 도서지역에 아리수 페트병 24만 병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겨울 가뭄으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여전히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힘을 보태고자 이번 추가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원된 11만 병은 서울시 강북아리수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500ml 9만 병과 1.8L 2만 병으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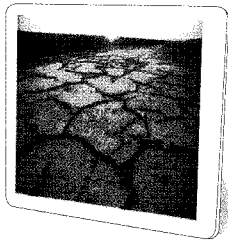
울시 이덕수 행정2부시장을 통해 태백시청 앞에서 전달됐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협회장)은 "강원도의 심각한 가뭄 상황을 전해 듣고, 서울 시민의 마음을 담은 아리수를 도민들에게 전해 식수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태백시장은 감사함을 전하며 "서울 시민 모두에게 한강의 발원지가 있는 태백에서 한강 끝까지 맑은 물이 흘러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리수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이고, 식수난이 계속될 경우 추가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뭄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가운데 전국 각계의 온정이 이어져 다소나마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

# 03 물 재이용 활성화,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기로 물 재이용으로 물 부족 및 가뭄에 대비, 저에너지 녹색성장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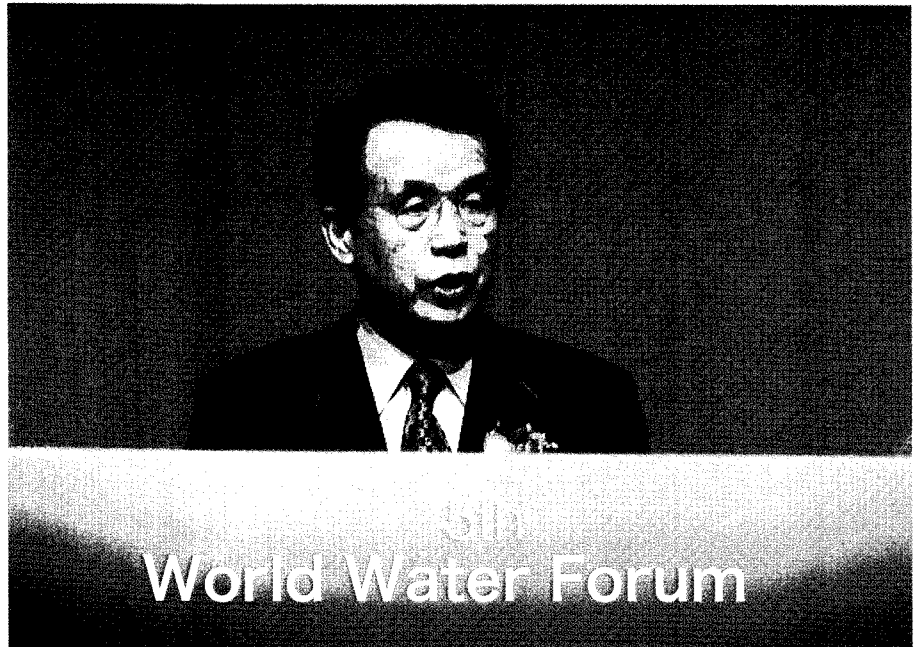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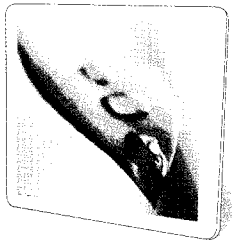
계속되는 가뭄으로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고통을 겪는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물 재이용 활성화'를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후수도관 개량, 절수기기 보급 확대를 통한 물 절약과 더불어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가뭄 시 물 이용이 취약한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Water Reclamation,

Recycling, Reuse)'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 재이용을 녹색 뉴딜(New Deal) 및 신성장 동력사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물의 재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여러 법에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 물 부족과 가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공업용수 재이용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물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04 세계 물포럼 한국 유치 공식선언



## 전 세계인의 물축제 '제5차 세계 물포럼' 터키 이스탄불서 개최 '2015년 제7차 세계 물포럼' 한국 유치 공식선언



21세기 '블루골드(Blue Gold)'로 각광받는 물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2만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3년마다 열리며 '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물포럼(World Water Forum)이 '수자원 격차 극복(Bridging Divides for Water)'을 주제로 지난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일주일간 열렸으며 물 관련 국제기구, 각국의 정부부처, 지자체, 기업,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2만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부·국토해양부·환경부 차관 등과 농림수산식품부·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 대표단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물포럼은 기후변화와 위기관리, 인류 발전 및 새천년 개발목

표 달성, 수자원 관리·보호 및 인류·환경적 수요를 위한 공급체계, 거버넌스와 물관리, 재정, 교육·지식 및 역량강화 등 6개 주요 주제에 따라 120여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모두를 위한 수자원 관리'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물 자원은 고갈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고 각국은 수자원 관리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번 세계 물포럼 기간 중 '물과 재해' 고위급 전문가 패널 준비회의를 주재하고 개회식과 국가수반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물과 재해' 고위급 패널회의에서 기초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세계 물포럼 개회식과 국가수반회의에 참석해 '2015년 제7차 세계 물포럼'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